

불자 세상보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 연구소 소장

2011년 2월, 우리 정부 스스로가 약탈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외교장각 문화재는 병인양요에 이어 두 번째로 약탈되고 말았다. 이번 갱신가능대여 합의에 대해 정부는 프랑스의 양보를 끌어낸 협상이라 말하고, 일부 언론은 실리를 얻은 협상이라 역시 포장하지만 필자는 이번 협상을 실패한 협상, 굴욕 협상이라고 규정한다.

한국 정부가 먼저 '임대'를 제안했기에 '임대'로 결론이 이미 정해진 협상이었고, 약탈된 외교장각 문화재 중 도서에만 한정된 협상이었다. 게다가 5년 갱신가능임대라는 굴욕적인 조건에 자동갱신연장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협상을 두고 실리를 말하는 것이 우습다.

첫째, 이번 갱신가능임대 합의는 문화연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외교장각

주권국가 포기한 '갱신 가능한 대여 협상'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필자는 2008년부터 시민의 이름으로 프랑스 정부와 외교장각 약탈문화재 소유권 반환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1년 2월 6일 외교장각 환수 재판을 지루하게 끌고 가기위해 우리 문화연대의 항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프랑스 문화부가 결국 프랑스 행정법원의 최후통첩에 손을 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제 외교장각 환수재판은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갱신가능대여 합의를 해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둘째, 이번 임대협상은 굴욕적인 협상이자 신중등교환 협상으로, 외교장각 문화재를 G20 정상회의의 정치적 재물로 삼고 말았다. 외교장각 도서가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돌아올 것이라고 보도한 프랑스 르몽드지 기사나 2015년과 2016년에 열리는 한·불수교 130주년 행사가 외교장각 도서를 포함한 한국의 문화재가 프랑스에서 전시된다는 사실은 '신중등교환' 방식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 상의 반환'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다르다. G20 정상회의의 정치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임대' 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협상에 임한 결과, 외교장각 문화재는 5년 단위로 노심조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굴욕적인 갱신가능대여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았다.

셋째, 이번 갱신가능대여 협상은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미래세대와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준 협상이다. 약탈임이 분명한 문화재를 '갱신 가능한 대여' 합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10만 점이 넘는 해외 반출 문화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상대국이 선례를 들어 '임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약탈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들 간의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건만, 한국 정부는 제국주의 역사를 지닌 국가들의 과거를 긍정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후손들에게 "제국: 프랑스"라는 꼬리표가 붙은 외교장각 문화재를 물려주게 됐다. 잘못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긴 것이다.

넷째, 왜 외교장각 도서만인가? 함께 약탈당한 문화재는 어찌됐나? 병인양요 당시 외교장각 도서뿐만 아니라 큰 의궤3권, 작은 의궤 9권, 헌석

나무상자 3개에 들어 있는 작은 책 31권, 중국 지도 1점, 조선지도 1점, 일본 지도 1점, 평면천체도 1점, 족자 7개, 한문이 적혀 있는 회색 대리석판 3개, 하얀색 대리석판이 하나씩 들어있는 작은 상자 3개, 투구가 붙어 있는 갑옷 3벌, 가면 1개도 함께 약탈당했다. 이 목록은 문화연대의 약탈문화재 환수 소송 목록에 포함돼있다. 외교장각 도서를 한시간 갱신가능하게 빌려오면서 위의 약탈문화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다. 병인양요의 약탈에 대해 프랑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얽어진 은폐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인가?

'사실 상의 반환'이나 '갱신 가능한'이라는 수식어는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번 갱신가능대여 협상은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내팽개친 협상이며,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준 실패한 협상에 불과하다. 이에 필자는 굴욕적 갱신가능대여 협상의 내면을 살살이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갱신가능대여가 아닌 외교장각 약탈문화재 완전 반환을 위한 외교협상을 다시 시작 할 것이다.

社說

덕조·덕현·덕운 스님에게

2월 28일은 비구 법정 스님의 열반 1주기였습니다.

큰스님을 추모하고, 그 분의 가르침을 되새겨도 모자랄 즈음에 언제 어디서부터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길상사 주지 자리를 두고 덕조·덕현 스님이 자리다툼을 하셨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큰스님을 떠올림니다. 그들은 큰스님을 추모해서가 아니라 큰스님과 덕조 스님과의 갈등을 되새김해 자신들의 주장과 의혹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유언이 조작됐다는 해괴한 말까지도 서슴치 않습니다.

덕현 스님도 많이 힘드셨지요? 큰 스님이 떠난 '맑고향기롭게'를 맑고 향기롭게 지키기 위해 소리 없는 싸움을 해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세속인의 욕망과 위선에 앞선 스님의 고독한 항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다섯째 상좌 덕운 스님이 맡았고 탈 많은 길상사 주지가 되셨습니다. 첫째, 셋째스님에 이어 다섯째스님까지 길상사로 인해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근 봉은사에서도 前 주지 명진 스님 측과 주지 진화 스님 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을 둘러싸고 여겨지거나 불거지는 갈등이 절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큰스님의 일곱 상좌 중 어느 스님에 이르러서야 이 구설이 끝이 날까요? 길상사를 창건한 큰스님이, 시주했던 길상화 보살이 이를 보고 무어라 하실까요?

덕조·덕현·덕운 스님의 앞날에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현현(顯顯)하길 합장발원 하면서 삼가 글을 올립니다.

말 한마디의 힘

개신교 원로 조용기 목사의 발언에 온나라가 어수선하다.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2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협의회(NCCK) 이영훈 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정부가 이슬람채권법 입법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운동을 벌이고, 범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언론들은 조 목사의 이러한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청와대는 조 목사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용기 목사의 근본주의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언, 성직자로서 도를 넘어 한참 넘는 발언은 문제가 분명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의 힘이다.

만약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지금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불교계에서는 종교편향, 불교편향과 관련해 많은 말과 행동을 해왔다. 하지만 2000만 불자의 하나된 목소리보다 한 목사의 발언이 더 주목 받는 현실에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조용기 목사 발언은 불교와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조계종, 나아가 불교계는 이번 사건에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와신상담(臥薪嘗膽)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와 사회가 불자의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조계종의 5대 결사가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

사부대중 칼럼



서현연 이천시보건의 공중보건의

한달 전 철원을 다녀올 일이 있었다. 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는데, 한적한 들판과 먼 산등성이가 눈으로 덮여 풍경이 아름다웠다.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는데, 포천 산정호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보였다. 멀지 않았다. 단지 약 5km정도 돌아 가면 되는 길이었다. 순간 열길로 빠지기 좋아하는 고질병이 재발했다. 가뭇가 생각을 했지만 나에게 사진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곧 포기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낯설음을 느꼈다. 사진기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하다니! 여자 친구도 아닌 사진기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서 포기한 행위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불행하게도 내가 사진기랑 연애하고 있다는 의미였을까?

언뜻 드는 생각은 '기억' 때문이다. 잊혀진 시간은 사라진 것이다. 없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받은 영향, 경험들, 내가 한 생각, 결정, 행동들이 축적되고

서른 즈음에...

기억된 결과라고 한다면,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는 적어도 나에겐 '없는 것'이지 않을까? 내가 산정호수를 사진기 없이 가서 설경을 즐긴 경험이 없는 것, 사라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아름다운 장소에 특별한 사람과 가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은 좋은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나에겐 기억에 관한 흥미를 갖게 했던 특별한 기억(?)이 있다. 의과대학은 본과 3·4학년 때 병원실습을 듣게 된다. 소화가 내과 실습 중에 수면내시경 기술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적당히 약을 혼합해 주사한 후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기술인데, 환자는 수면내시경이 아닌 일반 위내시경과 같이 대단히 통스러워하며 검사를 받지만, 검사자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냥 편안히 잠을 잔 것으로 안다. 주사한 약이 진행성 기억상실증(Anterograde Amnesia: 시점 이후의 새로운 사실들을 기억 못하는 것)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때 이런 의문이 들었다. 기술을 받은 사람은 고통을 당한 것인가? 당하지 않은 것인가? 이 의문은 그 당시 꽤나 나의 재

미있는 화두였다. 이 의문은 다음의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과 맞닿아 있었는데, 그 질문은 이것이었다.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다르게 말이다.' 그때 내가 찾았던 잠정적인 대답이 '기억의 공유'였다.

사실 기억에 관해 흥미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과거는 기억에, 현재는 직관에, 미래는 기대에 존재한다"는 "시간론"을 펼쳤다. 베르그송은 "기억이나 기대가 없다면 '없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만이 그것의 부재인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통찰은 놀랍게도 불교 안의 강력한 전통으로 존재한다. 바수반두(Vasubandhu)가 유식불교의 전통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장식(藏識)으로 번역되는 '알라야식'이 집착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열반이라는 것은 이 알라야식, 즉 기억의식을 제거하는 데서 다다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른이 된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간다. 가슴 감쪽은 '서른 즈음에'란 노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기 만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아마 그도 서른 즈음에 비슷한 생각을 한 모양이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 본 것이 아닐까? 매일을 살면서 채우는 것들, 나의 말과 나의 결정들, 내 행동들은 나에게 쌓여간다. 내가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의 몸이, 나의 습관이, 아니면 옆의 누군가가 기억할 지도 모른다. 난 가끔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 절망을 느끼곤 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발전하거나 후퇴한다.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드는 것이지만,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다시 상기한다. 내가 어떤 것을 쌓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알라야식을 끄는 데가지를 이룰 수 있다면業(karma)을 잘 쌓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한다. 새해가 두 달이 지났다. 변화하고자 했던 마음이 오랜 습관에 다시 질식했는지 모르겠다. 데카르트의 격언을 다시 새겨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렸던 결정들의 결과이다."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매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리나리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식, 호적(태평소)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김범은 스님, 상운 스님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3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1년 3월 10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들 종단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함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중무소에서 교부)
-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 의 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역학 수강생 모집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들이 직접강의)

- 육 임 학 과 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이우산 교수
 -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학과 육임학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육임학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육임학 교수
 - ▷주요저서 : 『육임입문』, 『육임실전』, 『대육임필법부명주』, 『육임책력』 등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5일(매주 토요일) 저녁7시~9시30분
- 기 문 단 갑 과 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조영택 교수
 -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학과 기문단갑 교수,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단갑 교수,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단갑 교수
 - ▷주요저서 : 『기문명법론』, 『기문초급강의』, 『기문중급 고급강의』, 『실전기문』 등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1일(매주 화요일) 저녁 7시~ 9시30분
- 명 리 학 과 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 ▷약 력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 (전)서울정화예술대학 외래교수, (전)청주대학교,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 ▷주요저서 : 『사주팔자진결(-)』, 『명리대전전』, 『복을 읽는 인상학』, 『수상과 손금의학』 등
 - ※ 기초완성반 : 5개월 과정 (매주 월요일)
 - ※ 공개강의 및 개강일 : 3월 7일(월요일) 저녁 7시 ~ 10시
- 관 상 수 상 학 과 정** (6개월과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4일(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 ~ 12시 30분
- 타 로 카 드 과 정** (2개월과정)
 - 담당교수 : 장진산 교수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2일(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10시

교육장소 : 대구시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1번출구 세종역학아카데미
교육상담 : 정수호교수 011-246-3933 . 053)651-8596